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공동체의 중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 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적용점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가족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이지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지체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사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사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하나님을 주목하여

본문: 사도행전 5장 27~33절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입니다(누가복음 1:1-4; 사도행전 1:1절). 누가의 직업은 의사이고(골로새서 4:14절), 사도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이며(디모데후서 4:11; 빌레몬서 1:24절), 헬라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파되어나갔는지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구성은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인 전도(1-12장)와 사도바울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13-28장)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건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게 합니다(사도행전 3:1-10절). 이 기적 때문에 모여든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너희가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넘겨주었고, 이방인 총독이 죄 없는 예수님을 석방하려 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으며, 흉악한 살인범과 바꾸어 결국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사도행전 2:36; 3:15절)라고 책망합니다. 본문은 당시의 종교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핍박을 받아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신자(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성도)는 '복음증거'의 사명에 충실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니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교회는 더욱 부흥하였습니다. 그러자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사도행전 5:17-18절).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반에 옥문을 열어 사도들에게 제 발로 나오게 하시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사도행전 5:19-20절).

사도들이 전도하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은 다시 끌어다가 경고를 합니다(5:21-28절).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말합니다(사도행전 5:29절). 또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공회원들도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선포합니다(사도행전 5:30-32절).

둘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성도)는 항상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33-39절에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고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두 가지 예증을 들어 진정시킵니다. 하나는 선지자라 자처하다 로마 기병에 의해 참수 당한 '드다'와 로마의 세금 징수에 반발하다 처형을 당한 '갈릴리 유다'입니다. 그들을 따르던 무리는 우두머리가 죽자,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흩어지지 않고, 더욱 뭉쳐서 예루살렘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셋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성도)는 핍박 중에도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40-42절을 보면,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풀어주었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 즉,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할만한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주신 것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성도)는 복음증거의 사명에 충실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신자(성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자(성도)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2.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애들레이드 폴라드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헌신하기 원했으나 몸이 약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매달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던 나날 중에 폴라드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에게서 현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폴라드는 아프리카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고 결심을 내렸습니다. 몸이 조금씩 회복되어 아프리카 선교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모금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몇 달을 열심히 뛰었으나 선교자금은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던 폴라드는 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는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폴라드는 선교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폴라드는 작은 기도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돌아가며 기도할 때, 한 노파의 기도가 폴라드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주세요"

노파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폴라드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선교계획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주님께 간구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폴라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되어 자신의 뜻을 따라줄 것을 주님께 강요한 그 일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부르며 철저히 회개했을 때 폴라드는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예레미야18:3~4)

계획은 우리가 세우지만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노파의 기도 감동받은 폴라드는 주님을 묵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글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고요한 중에 기다리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빛으셔서, 기록하신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을장님들께서는 마을/목장보고서를 종합하여 <마을보고서>를 작성 후, 목장보고서와 함께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1월 5일	1월 12일	1월 19일	1월 26일	2월 2일
마을특송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김	살롱
대표기도	김은경 권사	정미현 권사	정영숙 권사	정주영 권사	최명선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1월 1일	1월 8일	1월 15일	1월 22일	1월 29일
본당청소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샘솟는	섬 김
중식봉사					

주요광고

1. 목회자 평생교육이 1월 18일(화) 시냇가푸른나무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 담임목사님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취임감사에배가 1월 20일(목 11시)에 총회에서 있습니다
3. 장로, 전도사, 목사 시취교육이 1월 25일(화) 열린문교회에서 있습니다.
4. 교회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해 다음 주(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역자(협력) 및 당회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다당: 김학정 집사)
5. 확대사역자회의가 1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장소: 본당)
6.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심어.반주 / 문의: 서민기 목사)
7. 파워전도: 사랑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2시 30분/2층 집합).
금주: 3권사회 / 다음 주: 안수집사회

교우소식

환우들을 위한 치유 중보기도

동복희 전도사/김수차 권사/유수립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 /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